

건축계소식 / 83

현상설계경기 / 90

해외잡지동향 / 98

리포트(제11차 아카시아 포럼) / 104

건축계소식 archi-net

서울시건축사회,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설명회

11월 9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서울시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1일자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및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새 기준에 대한 설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주)린나이코리아와 (주)LG전자 시스템에어 콘사업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충북건축사회, 친선 등반대회 개최

경북·전북건축사회와 삼도봉 등반

충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경북, 전북건축사회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는 물론 상호정보교류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삼도봉 등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개도건축사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매년 정기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삼도봉 정상에서 '슬기와 희망과 용기를 주어 좀 더 크고 넓은 건축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장석웅 회원, 문화훈장 옥관장 수상

지난 10월 20일

장석웅(63, 아도무건축)회원이 문화훈장 옥관장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3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화훈장(34명), 대한민국문화예술상(6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8명) 등 48명의 문화유공자에 대한 시상이었다. 문화훈장 수상자 중에는 장석웅회원 외에 건축계인사로 주남철(문화재위원, 고려대)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번 문화훈장을 수상한 장석웅회원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은 물론 국제건축교류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제21차 UIA 총회

제21차 UIA총회가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독일 베를린 The Interational Congress Center에서 「자원과 건축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부일정

- 2002. 7. 22(월) 활동계획 회의
- 2002. 7. 23(화) 국제위원회 지역회의, 과학위원회 회의
포럼 및 워크샵 (도시사회, 개혁과 전통, 건축과 자연)
- 2002. 7. 24(수) 국제위원회 지역회의, 과학위원회 회의
포럼 및 워크샵 (도시사회, 개혁과 전통, 건축과 자연)
- 2002. 7. 25(목) 국제위원회 지역회의, 과학위원회 회의
포럼 및 워크샵 (도시사회, 개혁과 전통, 건축과 자연)
- 2002. 7. 26(금) 과학위원회 회의 (공간과 정체성)

기타사항 (동 기간내에 개최)

- 학생공모전 및 UIA 건축상 시상 및 전시회
- 건축기행
- 세계무역박람회 개최

총회사무국

- UIA Berlin 2002 e.V. Koepenicker Str. 48/49
D-10179 Berlin (Mitte)
- Fon +49-30-27 87 34 40, Fax +49-30-27 87 34 12
- www.uia-berlin2002.com, info@uia-berlin2002.com

공동주택관리령 입법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 또는 단지 단위의 개·보수를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10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증·개축을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사실상 리모델링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하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또는 단지단위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구수를 증가시키거나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세대통합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상호 용도변경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 단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상호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단지별에 한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을 리모델링 사업용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리모델링 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수립토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 제안주체의 기능을 부여,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적인 이주가 필요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리모델링조합을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2천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 유치원부지가 사용검사 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축하는 사례가 많아 2천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부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용도로만 신축토록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변경 절차를 완화, 지금까지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계단높이 제거 등 경미한 개조행위의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동의 및 시장허가를 받아야해 실제 시설변경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소형평형의 대형평형으로 개조, 재건축시 경제성이 없는 1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개·보수, 주차장확충을 위한 부대복지시설간의 용도변경, 발코니의 실내화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공포

11월 10일 공포와 동시 시행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영역에는 러브호텔 또는 단란주점 등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택가 및 학교 주변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 11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거리안에는 러브호텔 또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숙박 및 위락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 규제키로 했다.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해 떨어져 있더라도 200미터 안에서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규제의 여지를 남겼다. 조례 개정안은 아울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개발행위 허가취소 규정을 고쳐 2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해 1년의 기간 동안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울트라건축박물관 개관

11월 16일

건설회사에서 설립하는 건축박물관이 11월 16일 개관하게 된다. 그것은 울트라 건설 주식회사에서 설립하는 사립박물관인 울트라건축박물관으로 총정리

에 위치한 건축에 관한 전문박물관이다. 울트라 건설의 강석환 회장이 대학 2학년 때부터 수집한 자료로 문을 열게 된 울트라건축박물관은 대패, 끌, 톱, 그릇, 깎, 활, 흙이, 먹통, 송곳, 기와 등 30여종, 총 780여 점에 이르는 건축연장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축연장의 점수의 측면에서도 최대의 점수를 자랑한다.

11월 16일, '건축장인의 연장이야기'라는 테마로 전시되는 개관전은 우리의 전통적인 조선시대 중·후기의 연장은 물론, 일제~해방이후에 이르는 우리의 옛 건축연장 2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우리 연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이해하며, 또한 중국과 일본, 미국의 연장자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각국 연장의 특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울트라 건축박물관은 개관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열릴 예정이며, 박물관 교육도 계획 중에 있다.

개관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제6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에 '삼성생명 Noble County'

경기도가 주최하고 우리협회 경기도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등 건축 및 건설관련 5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 제6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30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시상식과 2부로 심포지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 시상식에서는 금년도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36점 중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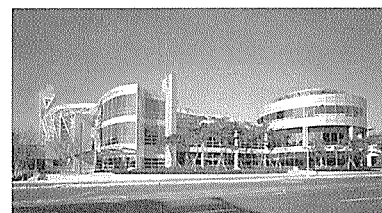
어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용인 하갈리 삼성생명 노블카운티(삼우설계/삼성물산/삼성생명)의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가 차례로 수상하였다.

지난 9월에 구성되어 금년 건축문화상 심사를 맡아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수원대학교 안경환 교수에 따르면 삼성생명 Noble County는 쾌적성을 높인 옥외공간계획과 각 건물간의 연결 동선을 Bridge로 연결하여 주거동에서 복지시설로 노약자나 장애자의 이동 용이하게 한 동선계획이 우수하다는 평이며, 생활문화센터에 어린이집과 연회장, 그리고 스포츠센터를 개방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내 노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함으로써 노인생활을 더욱 활기치게 만들고자 배려하는 등 복지시설의 사회 환원화를 이룬 점에서 시설의 사회적 기여도가 컸다는 심사평이다.

주거부문에서는 은상에는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씨퀼스(서인건축/세진건축/오용석)가 은상을, 가평군에 위치한 북면씨주택(에터건축/화인하우스/김수중)이 동상을 차지했고, 비주거부문에서는 안양시의 안양체육관 및 빙상경기



대상/노블카운티



비주거부문 금상 / 안양체육관 및 빙상경기장



주거부문 은상 / 씨퀼스

가장(행림건축)이 금상을, 평택시의 안중성당(NS한건축)이 은상, 광주시 영은미술관(일건축)이 동상을 각각 차지했으며, 이 외에는 주거부문 2작품과 비주거부문 7작품은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작품중 동상이상 작품의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가 상을 수상했으며 설계자에게는 시상금이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이 부상으로 지급되었다. 시상식에 이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손세관 중앙대 교수 주관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해서 이지형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장 등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이날 심포지엄 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심사는 안경환(수원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기봉(동문건설), 김동훈(진우종합건축), 김정희(동국종합건설), 윤덕찬(윤건축), 이도형(경기도의회), 이영택(정동종합건축), 이운구(경기도의회), 정용배(경기도 주택과)씨와 김덕현(수원과학대)교수가 참여했다.

건축가협회, 제6회 건축사진전

11월 19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최우수상에 '광명'

건축가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6회 건축사진전이 한국건축가협회 주최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12일까지 총 82점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김종민(제주대)씨의 '광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박 승(삼우건축)씨의 '옥외 배수로'와 조성욱(대룡건축)씨의 '삶의 자취를 따라서'가 선정됐고, 장려상에는 윤보기(성균관대)씨의 '의도'와 박종수(한양대건축디자인대학원)씨의 '남산골 샌

님', 이혜란(동국대)씨의 '마이너스 이즈 플러스'가 선정됐다. 그 외에 15작품의 입선작이 선정됐다. 심사는 정정웅(정정웅사진연구소)씨를 위원장으로 김한일(그룹한건축), 박상현(이키플랜), 문신규(토탈디자인), 이병호(다다인터내셔널), 원대연(플러스문화사), 조성렬(큐빅디자인연구소)씨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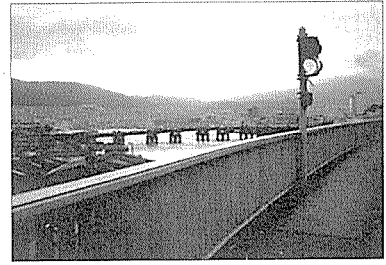


최우수작

2001건축도시사진전

대상에 '영도다리의 마지막 신호'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가 주최한 2001건축도시사진전에서 윤준환(동아대)씨의 '영도다리의 마지막 신호'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오브제의 표현보다는 건축, 도시, 인간미, 삶 등이 어우러진 사진을 선정한다는 심사기준을 가진 이번 사진전은 대상외에 최우수작으로 조현제(동아대)씨의 '육교풍경1'과 김석환(터·울건축)씨의 '여기도 저곳처럼 되고 싶어한다'를 선정했다. 그 외에 우수상 3점과 특선 5점, 장려 10점 등 입선 다수를 선정하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했다. 심사는 정량부(동의대)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김기연(인제대), 오승환(경성대 영상사진공연학부)교수와 강대화(토탈건축), 조명환(건축사진가)씨가 참여했다.



최우수작

「목조주택의 오늘」展 개최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에서 11월 30일까지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가 주최하는「목조주택의 오늘」전이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국민대학교 강남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인 11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관련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환경건축의 패러다임(이윤하소장), 북촌 한옥마을의 보존과 재생(송인호소장), 목조건축의 텍토닉적 환경(조남호소장)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2006-6212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추가모집

12월 7일까지 접수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3년과정: 건축설계
- 박사과정: 건축계획, 건축역사·이론, 도시환경, 디지털건축
- 전형방법**
- 석사3년과정: 실기(개념스케치, 해

설), 구술

-박사과정: 서류, 구술

지원자격

-석사3년과정: 학사학위취득자와 취득 예정자(전공불문)

-박사과정: 건축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자와 취득예정자

전형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형일: 2001년 12월 12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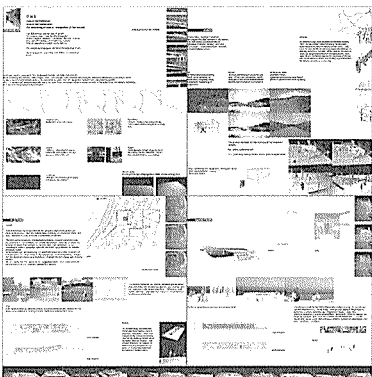
문의: 02-390-5245

http://gsak.kyonggi.ac.kr

2001공간국제학생건축상

대상에 이승윤, 이일하의 '스카 이즈 메모리'

공간사가 주최한 2001공간국제학생건축상의 시상식이 지난 10월 9일공간사옥 전시장에서 있었다. 1983년 신설되어 올해로 19화째를 맞는 공간국제학생건축상은 올해부터 참가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대상에는 이승윤, 이일하(한국예술종합학교)씨의 '스카 이즈 메모리(Scar is Memory)'가, 최우수상에는 이종희, 이정승, 김명선(아주대)씨의 '블러(Blur)', 우수상에는 김세림, 김표중, 김명곤(성균관대)씨의 '롱스탠딩..랑데뷰'



대상

외 2점이, CG상에는 이동복(성균관대)씨의 '랑데뷰:타임앤스페이스'가 선정됐다. 그 외에 가작 4점, 입선 7점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만남(Rendez-vous)'이었다. 심사는 민현식(한국예술종합대학, 기오현), 세지마

현실비평연구소, 테마건축기행

2002년 2월 2일부터

가즈요(SANAA, 일본)씨가 맡았다. 현실 비평연구소에서는 테마건축기행 - 네가지 이야기를 기획, 답사를 통한 '세계건축사' 기행을 마련한다. 이번 여행은 모집 인원수에 따라 15명, 30명 두 경우 중 하나의 경우로만 운영하며, 현장비평 시스템을 운영하되 대장과 대원으로 구성되어 답사 전반에 대한 운영과 토의 및 핸드북을 작성하게 된다. 또한 도상학적 측면에서 보다 집중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참가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적극적인 세미나가 될 것으로 주최측은 기대하고 있다. 문의: 02-372-7739 www.archi.tv

첫번째 이야기 / '유럽건축사' 기행

- 코스 : 서울 - 홍콩 - 런던 - 파리(롱상) - 암 스테르담(로테르담) - 베를린 - 빈 - 베네치아(밀라노, 코모, 루가노) - 쥐리히(바젤, 워인) - 홍콩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15박 16일 예정코스로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가경비 : 315만원(학생 5% 할인 : 299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50만원 납부)

두번째 이야기 / 헤쳐모여 'IMF식 일본 현대건축' 기행

- 코스 : 서울 - 동경 - 오사카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6박 7일 예정코스로 구성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 135만원(학생 5% 할인 : 128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30만원 납부)

세번째 이야기 / 9년의 노하우 '양질전 이' 프로젝트

- 코스 : 서울 - 동경 - 오사카 - 교토 - 고베 - 히메지 - 후쿠오카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6박 7일 예정코스로 구성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 180만원(학생 5% 할인 : 171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30만원 납부)

네번째 이야기 / '인도 건축' 기행 프로젝트

- 코스 : 서울 - 델리 - 바라나시 - 아그라 - 자이프르 - 아메다바드 - 다카 - 봄베이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 참가경비 : 198만원(학생 5% 할인 : 189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50만원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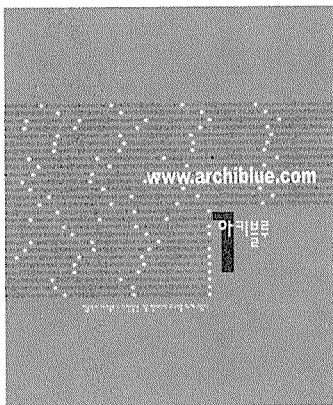
신간안내

아키블루(건축문화무크지)
안동 하회마을, 반가와 민가

◆ 아키블루(건축문화무크지)

건축문화 무크지를 표방하고 탄생하는 「아키블루」는 온라인(www.archiblue.com)으로 2000년 10월에 문을 열어 운영해오다가 오프라인에 대한 요구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연간 2번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온라인 내용과(1/3) 추가내용(3/2)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소통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항상 문화적으로 척박하다고 뻔뻔하게 경직되어 있는 부산이라는 땅에 서로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었기도 했다.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 공간에서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하나이듯, 우리가 만드는 매체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젖어 물들어 가는 건축을 말하고 싶었다.

문의 : 비온후(051-464-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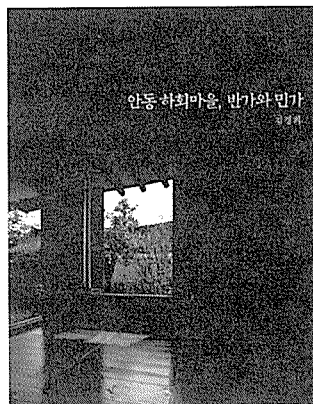


아키블루 표지

◆ 안동 하회마을, 반가와 민가

하회마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인 전통마을이다. 우선은 양진당, 충효당을 위시한 하회 류문들 반가의 품위와 각 가옥마다의 독특한 의장적 표현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사회적, 시대적인 배경을 각 집마다 옷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가옥들의 격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지순가인 충효당이 송고한 권위를 지녔으나 종손가 양진당의 위상을 따라낼 수 없는 것 또한 이에 연유하는 것이다. 다음은 하회의 민가이다. 어쩌면 하회마을은 민가로 인하여 더욱 보존 가치가 높은 지도 모른다. 하회의 민가는 우리 나라의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민가형의 대부분을 보여준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민가이기 때문에 하회의 이러한 현상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 것이다. 대다수의 백성들의 집을 민가라고 볼 때 우리의 민가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하회의 집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회에 있는 반가와 민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主)문화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전통이 현 사회의 이해 관계 때문에 다양하게 이해되고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 하회의 훼손에 대비하여 하회마을의 반가와 민가를 지면상으로도 기록해두고자 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두었다.



김경희 지음 / 8천원 / 비온후 펴냄(051-464-4115)

전국 시도 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5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8-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6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8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857-6149
- 오산시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